

Accounting English 회계용어 정리

○개별법(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) : 재고자산별로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이다. 즉,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 매입원가를 파악하여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.

○선입선출법(FIFO, first-in first-out cost formula) : 먼저 매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다.

○후입선출법(LIFO, last-in first-out cost formula) : 나중에 매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다.

○가중평균법(weighted average cost formula) : 기초재고자산과 당기에 매입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.

○저가법(lower of cost or market) :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다면 당초 취득원가로 기록한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시키는 회계처리.

○감가상각(depreciation) :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의 감소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매 회계기간마다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.

○잔존가치(residual value) : 내용연수 종료시점에서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.

○내용연수(useful life) :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 또는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말한다.

○정액법(straight-line method) :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매 회계기간마다 일정

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.

○체감잔액법(declining-balance method) :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

○생산량비례법(units-of-production method) :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효익의 감소가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에 비례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감가상각비를 인식.

○무형자산 감가상각(amortization) :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배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상각.

○금융부채(financial liabilities) : 금융자산의 반대 개념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부채로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말한다.

○충당부채(provision) :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부채로 인식.

○의제의무(constructive obligation) : 구체적인 약속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.

○우발부채(contingent liabilities) : 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할 수 없는 잠재적 의무.

○자본조정(capital adjustment) : 자본금, 자본잉여금에 속하지 않는 임시적인 자본항목을 가리킨다.

○자기주식(treasury stock) :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조각하거나 재발행할

목적으로 재취득한 주식을 의미한다.

○포괄손익(comprehensive income) :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.

○이익잉여금(retrained earnings) : 일시적인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원천으로 하여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을 의미한다.

○주당이익(EPS, earnings per share) :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으로서 기업의 투자수준을 반영한 수익력의 측정치.

○회계의 순환과정(accounting cycle) : 회계연도 중에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일련의 절차.

○시산표(trial balance) : 기초잔액에 기중에 발생한 모든 거래를 반영하여 모든 계정 과목과 금액을 하나의 표로 집합시킨 것이다.

○역분개(reversing entries) : 장부가 마감된 뒤 다음연도 초일에 직전연도에 행해진 기말수정분개에 대해서 반대의 분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.

○추세분석(trend analysis) : 일정 기간 동안 재무제표 자료의 변화를 분석하는 기법.

○구성비율분석(component ratio analysis) : 재무제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을 100%로 하고, 다른 항목들을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분석하는 기법.

○재무비율분석(ratio analysis) : 재무제표상의 항목들 간의 관련성을 상호 비율을 통

해서 분석하는 기법.

○유동비율(current ratio) : 기업의 단기채무 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.

○당좌비율(quick ratio, acid test ratio) : 유동자산이 장기간 판매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유동비율을 이용하여 기업의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비율.

○이사보상비율(interest coverage ratio) :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와 세금을 낼 수 있는 정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재무비율.

○EBIT(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) : 법인세비용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.

○매출채권회전율(receivable turnover) : 회사가 당기 중에 몇 번이나 매출을 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였는지 보여주는 재무비율.

○재고자산회전율(inventory turnover) : 회사가 당기 중에 몇 번이나 재고자산을 매입 또는 생산하여 판매를 하였는지 보여주는 재무비율.

○자기자본영업이익률(ROE, return on equity) : 기업에 투자된 자기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영업이익을 실현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비율

○주가이익비율(PER, price earnings ratio) : 주식의 가격이 주당순이익에 비해서 몇 배나 높게 또는 낮게 형성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.